

폭넓은 문화비평으로 '대중성' 확보해야

書評저널리즘에 대하여

潘星完

한양대 교수·독문학

'저널리즘에 있어서 서평의 위치와 기능을 살펴보고, 우리의 서평풍토를 전반적으로 진단해 달라'는 편집자의 주문에 부응하기란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이에 관한 본격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출판문화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어느 정도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에서 우리의 서평 문화가 당면하고 있는 막연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나은 서평풍토를 위해서 필요한 전제조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학술적 서평과 저널리즘적 서평

우선 서평은 크게 학술적 서평과 저널리즘적 서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술적 서평은 각 학술전문지에 실리는 서평으로서, 이는 서평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술적 토론의 성격 때문이다. 이러한 학술적 서평은 전문가라는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씌어지는 글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논리적 치밀성을 요구한다. 학문적 서평의 수준은 어떤 학문의 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우리의 경우,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학문적 서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누누이 지적되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서평문화의 전통이 정착되려는 기미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흔히 우리의 학문이 지니고 있는 談論행위의 취약성, 학문을 둘러싸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환경의 경직성, 그리고 학문집단이 지닌 길드적 폐쇄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저널리즘적 서평이란 대중매체를 통한 서평으로서, 이러한 서평의 특징은 광범위한 독자층을 상대로 해서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런데 학술적 서평이 중요시하는 전문성과 저널리즘적 서평이 담보해야 하는 대중성은 완전히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이 양자의 관계는 면도칼로 자르듯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잘 씌어진 학술적 서평은 일정한 대중성을 확보해야 하고 제대로 된 저널리즘적 서평은 전문성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대학강단의 지식인과 저널리즘의 지식인 사이를 너무 갈라서 분류하고 있는 듯한데, 이는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 西歐나 우리나라의 근대 知性史를 보면, 일급의 지식인들은 저널리즘에

학술적 서평과 저널리즘적 서평은

상호보완 관계를 지녀야 한다.

잘 씌어진 학술적 서평은

일정한 대중성을 확보해야 하고,

제대로 된 저널리즘적 서평은

전문성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대중매체는 문화 비평이나

책 비평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하고,

전문서평지와 함께 전문 서평기자가

출현해야 한다.

직접 종사했거나 아니면 저널리즘적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한 사람들이다. 마르크스(특히 초기)나 엥겔스도 저널리즘을 통하여 그들의 이념을 펼쳤고, 문예비평에 지대한 공헌을 한 현대 서구 지식인들, 예컨대 메링, 플레하노프, 벤야민, 블로흐, 루카치 등도 저널리즘적 작업을 통하여 그들의 이론을 정립하였다. 이렇게 보면 훌륭한 저널리스트는 훌륭한 아카데미적 지식인과 맞먹는 사회적 역할과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강단의 지식인이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체로 특정한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몰두한다면, 저널리즘적 지식인의 知的 작업은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전체적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대중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바람직한 관계는, 각각의 독자성에 충실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삼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다.

저널리즘의 서평이 지녀야 할 사회적 위치와 역할도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사이의 이러한 일반적 관계 속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로서의 저널리즘 서평

저널리즘에서의 서평은 어떤 특정한 제도 및 조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어떤 제도나 조직은 그 자체의 이념적 지향성이나 상업적 이해를 추구하기 때문에, 서평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공중적 보편성과 객관성과는 서로 화합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구조와 유통구조 속에 깊숙히 빠져 있는 책의 산업은 자본주의적 경제원칙, 즉 가능한 한 많은 부수의 책을 팔아 최대의 이윤을 획득해야만 하는 원칙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시장 메커니즘 속에서, 저널리즘의 서평은 특정한 대중매체나 출판사의 판매에 봉사하려는, 즉 광고를 돕는 역할을 하려는 강한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처럼 아직도 출판문화의 질서와 에토스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한 듯하다.

서평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방해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서평자의 자질과 인간관계이다. 우리의 경우는 시민사회의 삶을 살아온 연륜이 짧기 때문에 서구의 시민적 지식인사회가 갖는 공적인 여론(Öffentlichkeit)이나 지식인의 일정한 사회적 직업윤리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서평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듯, 우리는 정립되지 않은 막연한 '전통적' 人學緣, 地緣 등에 얽혀 있는 인간관계의 부담으로 인하여 책이나 事象 그 자체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대체의 서평은 진정한 의미의 균형감각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상호칭찬'이나 '상호아침'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서평문화의 개선을 위한 제안

서평이 지니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저널리즘의 서평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매우 일반적이고 관념적이기 하나, 다음에 이에 대한 필자 나름의 생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기존의 대중매체는 우리의 문화현상 전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문화비평이나 책의 소개나 비평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적 여건으로 볼 때, 이제 보다 다양화된 우리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본다. 그리고 대중매체가 장악하고 있는 폭넓은 대중성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문화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가 갖는 완고한 형식의 보수성과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보다 진보적이고 다양한 형식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 전문서평지와 함께 전문 서평기자의 출현이 요청된다. 그런데 여기서 전문서평지라고 할 때, 이를 우리는 좁은 의미로 파악해서는

안된다. 전문서평지는 책의 비평을 통한 폭넓은 의미의 문화비평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넓은 독자층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읽을거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서평기자이다.

오늘날 대중매체의 서평란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로 대학의 지식인이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전공자의 서평도 있어야겠지만, 전공자의 업적을 어느 정도 개괄하면서도 이를 평이한 언어로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확산하는 일—이는 전문적 서평기자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다)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서평을 통한 문화의 확산과 창달은 전체 독자층의 책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확대되고 심화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요와 공급은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 좋은 서평과 좋은 서평전문지가 굳건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독자층의 책에 대한 감식안과 문화적 역량이 증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사회의 기층조직에서부터(예컨대 도서관, 독서클럽 등) 독서와 책의 문화에 대한 반성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널리즘의 서평은 책의 문화를 전향적으로 자극하고 견인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은 서평이 문화형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知的, 실천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